

배포일 : 2025.11.26. 보도일 : 배포즉시	쪽수	사진	기관 도메인주소	자료문의
전통을 지켜 독립을 밝히다, 경기도박물관 특별전 《오세창: 무궁화의 땅에서》	7	8	muset.net.ggcf.kr	부서 :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팀 담당 : 정윤희 전화 : 031-288-5381

전통을 지켜 독립을 밝히다, 경기도박물관 특별전 《오세창: 무궁화의 땅에서》

- ▶ 광복 80주년 경기도박물관의 특별전 3부작 - 김가진, 여운형에 이어 《오세창: 무궁화의 땅에서》 개막
- ▶ 『근목』, 『근역서휘』, 『근역화휘』, 『근역석목』, ‘위창문고’ 등의 위창 컬렉션과 한국 미술사 연구의 바이블인 『근역서화징』 원본 등을 역사상 최초로 한자리에 모아, 감식 수장으로 지켜낸 오세창의 문화독립 활동 조명
- ▶ 오경석의 『중사간독첩』, ‘이순신의 친필 편지’, 신사임당의 그림, 이견희 컬렉션의 《무구정광대다라니경》등 보물 21점을 포함한 90여 점의 작품 소개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관장 이동국)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위창(葦滄) 오세창(吳世昌, 1864~1953)의 삶과 예술, 그리고 문화 독립의 정신을 조명하는 특별전 《오세창: 무궁화의 땅에서》를 오는 11월 27일부터 2026년 3월 8일까지 개최한다.

오세창은 개화기부터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와 해방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며 독립운동가, 서화가, 수장가, 언론인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며 한국 근대 문화 형성의 초석을 다진 인물이다. 이번 전시는 경기도박물관이 기획한 ‘광복80-합승’ 특별전 3부작의 마지막 전시로, 앞선 김가진·여운형 특별전이 20세기 전반의 정치와 사회를 조명했다면, 이번 전시는 문화적 관점에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긴다.

오세창은 부친 오경석의 개화사상과 조선과 청나라와의 문예 교류에 힘입어, 조선 개화기부터 일제강점기와 해방에 이르기까지 변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 지식인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개화기에는 새로운 문물과 지식을 수용하며 근대 사상과 학문의 기반을 마련했고, 대한제국기에는 언론 활동으로 항일 의식을 확산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3·1운동 민족대표 33인으로 참여하여 독립운동의 역사에 중요한 족적을 남겼다. 동시에 그는 우리 문화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쳐 고서화와 금석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며 민족문화의 맥을 잇고자 했다. 그가 모으고 남긴 방대한 글과 그림은 오늘날 한국 문화유산 연구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오경석, 오세창 부자(父子)의 삶과 활동을 조명하며, 두 선각자가 남긴 정신적 유산과 문화적 실천의 의미를 새롭게 되짚고자 한다. 오세창의 생애를 관통하는 핵심어는 ‘문화보국(文化保國, 문화로 나라를 보전하다)’이다. 전통이 흔들리던 격동의 시대에도 그는 금문(金文) 연구, 서예와 전각 활동, 고서화 및 금석 자료의 수집과 편찬을 통해 민족 문화의 계보를 잇고 나라를 지켜내고자 힘썼다.

전시는 오세창의 삶과 사상을 네 가지 주제로 구성해, 근대 문화계를 이끌었던 인물로서의 면모를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① 오세창과 아버지 오경석, ② 금문 탐구와 전각 예술, ③ 문화를 지켜낸 수집 활동, ④ 오세창의 글씨와 동시대 예술이 차례로 소개된다. 전시를 기획한 경기도박물관 정윤희 선임학예사는 “오세창의 수집과 기록은 그 과정 자체가 곧 독립운동이었다”며, 이번 전시를 “한국 문화가 어떻게 지켜지고 전해져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오경석이 청나라 문인들과 나눈 서간을 묶은 『중사간독첩(中士簡牘帖)』과 오세창이 수집하여 엮은 『근묵(槿墨)』, 『근역서휘(槿域書彙)』, 『근역화휘(槿域畵彙)』, 『근역석묵(槿域石墨)』, 『근역서화징(槿域書畵徵)』 등, 여러 기관에 나뉘어 소장되어 있던 주요 유물이

역사상 최초로 모인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오경석과 오세창의 컬렉션이 대규모로 출품되어, 한국 서화사의 전모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보물 21점을 포함해 9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는데, 강감찬·김정희·신사임당·정약용·한석봉 등 미술사 핵심 인물들의 글과 그림도 있다. 간송(澗松) 전형필(全鎣弼, 1906~1962)과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보화각(葆華閣)’ 현판과, 위창이 감상하고 글을 남긴 이견희 컬렉션의 《무구정광대다라니경》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오세창의 글씨와 이당(以堂) 김은호(金殷鎬, 1892~1979)의 그림으로 꾸며진 <두 폭 병풍>은 이번에 최초로 공개되는 유물이다.

이번 전시에는 간송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서울대학교박물관,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월전미술관 등 국내 유수의 기관이 참여하여 의미를 더했다.

경기도박물관 이동국 관장은 “오경석·오세창 부자가 수집하고 남긴 글과 그림은 광복의 정신을 지탱하는 요체이자, 오늘날 현대예술과 ‘K-컬처’의 뿌리를 이루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그러나 “지금 고서화 가치는 서양미술의 백분의 일도 안 된다. 세계 주요 경제국인 우리나라가 이번 전시를 통해 문화 통일과 문화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사·전통·예술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경기도 박물관은 이러한 가치 실천에 도민과 함께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시는 경기도박물관 기획1실에서 열리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박물관 누리집(musenet.ggc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시 개요

전 시 명	《오세창: 무궁화의 땅에서》 In the Land of Eternal Blossoms: Oh Se-chang and the Legacy of Cultural Independence
전시기간	2025. 11. 27. 목 - 2026. 3. 8. 일 (102일, 매주 월요일 휴관)
장 소	경기도박물관 기획전시실 1(약 500㎡)
전시기획	경기도박물관 선임학예사 정윤희
주 관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
문 의	031-288-5300
전시 소개	<p>2025년은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이다. 경기도박물관은 이 뜻깊은 해를 맞아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세 인물을 조명하는 특별전 시리즈를 마련했다. 김가진, 여운형에 이어 그 마지막은 위창輩滄 오세창吳世昌이다.</p> <p>개화기에서 해방에 이르기까지, 위창은 독립운동가이자 예술가, 수집가이자 언론인으로서 시대를 관통하며 ‘문화로 나라를 지키는 길’을 걸어갔다. 《오세창: 무궁화의 땅에서》는 그의 삶과 예술, 그리고 남긴 문화유산을 다시 돌아보는 자리이다.</p> <p>위창은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말로 ‘근역權域’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무궁화의 땅이라는 뜻이다. 다함이 없다는 꽃의 이름처럼, 우리 문화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기를 바란 마음이었을 것이다.</p> <p>그가 수집하고 남긴 수백 점의 글과 그림은 오늘날 우리 문화의 중요한 기반이며, ‘K-컬처’의 뿌리를 이루고 있다. 우리 문화가 세계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널리 피어나고 있는 지금, 이번 전시는 오세창의 역할을 되새기고 그 정신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다.</p>
전시 구성	<p>I. 개화와 독립 - 역매亦梅 · 위창의 시대</p> <p>위창 오세창의 삶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인물은 그의 아버지 역매 오경석吳慶錫(1831-1879)이다. 조선 후기 역관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청나라 문물에 밝은 지식인이자 금석문·서화를 폭넓게 모은 수집가였다. 오경석의 사상은 아들 오세창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급변하는 시대에 태어난 위창은 아버지의 유산 안에서 자신의 사상과 예술 세계를 만들어 나갔다.</p> <p>II. 형태로 새긴 의미 - 금문金文 탐구와 전각篆刻 예술</p> <p>돌과 청동기에 새겨진 옛 문자 ‘금문金文’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오세창이 평생 탐구한 분야였다. 그는 금문을 통해 옛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글자를 쓰는 방식의 근원을 찾고자 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결과물이 도장을 새</p>

기는 작업인 ‘전각篆刻’이다. 위창의 전각은 문자의 조형을 탐구하는 과정이었으며, 그 경험은 곧 서예로까지 확장되었다.

Ⅲ. 수장收藏의 길 - 문화 독립을 향하여

오세창은 수많은 옛 글과 그림을 모아 정리함으로써, 식민지 조선에서 우리 문화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기록하는 데 힘썼다. 그의 수장收藏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위기에 처한 나라의 문화적 자주성을 지키려는 노력이었다. 전시에 소개된 『근묵槿墨』, 『근역서휘槿域書彙』, 『근역화휘槿域畵彙』 등은 이러한 신념의 결실로, 그는 이를 통해 한국 문화의 계보를 후대에 잇고자 했다.

Ⅳ. 붓끝으로 시대를 건디다 - 오세창의 글씨과 동시대 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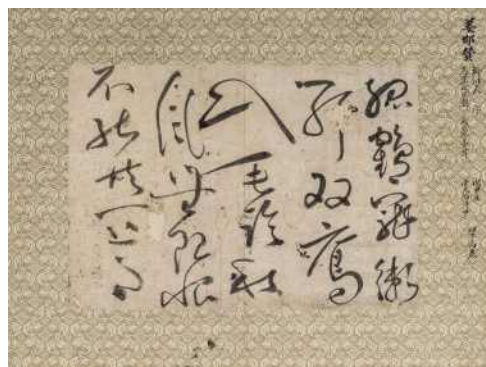
오세창은 옛글씨에 대한 깊은 탐구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서체를 확립한 서예가였다. 그의 전서篆書와 예서豫書는 단단하면서도 유연한 형태로, 고유한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는 전통의 정신을 지키면서도 새 시대의 미감을 탐구한 치열한 실험의 결과이다. 위창은 안중식·노수현·고희동 등 동시대 예술가들과 활발히 교류하며 예술로 시대를 견뎌 나갔다.



오세창이 엮은 『근역화휘』 중 신사임당이 그린 <백로도>, 16세기,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오세창이 옛 글씨를 모아 엮은 『근묵』을 위해 직접 적은 제목, 1943년,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소장

주요 작품



오세창이 옛 글씨를 모아 엮은 『근역서휘』 중 강감찬이 쓴 시, 11세기,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오세창이 옛 글씨를 모아 엮은 『근역석목』 중 '고구려 평양성 돌 조각' 탁본, 20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위창 오세창 소개

	
<p>이세득, <오세창 초상>, 1949,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 소장</p>	<p>William Frederick Mayers, 오경석의 초상 사진, 19세기 말,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소장</p>

오세창(1864~1953)의 본관은 해주(海州). 자는 중명(仲銘), 호는 위창(葦滄 · 韙滄)으로 서울에서 태어났다. 조선 말기 중국어 역관이며 서화가·수집가였던 오경석(吳慶錫)의 장남이다. 개화기부터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와 해방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시대를 살아낸 근대 지식인이자 독립운동가이다.

오세창은 20세에 역관으로 관직에 입문한 뒤, 1886년 박문국 주사로 근무하며 『한성순보』 기사를 검임해 근대 언론 활동에 참여했다. 1894년에는 군국기무처 총재비서관으로 발탁되었고, 이후 농상공부 참서관, 통신원 국장 등을 맡으며 근대 국가체제의 여러 분야에서 행정 경험을 쌓았다. 1897년에는 일본 문부성의 초청으로 도쿄외국어학교에서 1년간 조선어를 가르치며 국제적 시야를 넓혔다.

1902년 개화당 관련 사건으로 일본으로 향하던 중 손병희(孫秉熙)의 권유로 천도교에 입교하였고, 1906년 귀국 후에는 『만세보』와 『대한민보』의 사장을 맡아 항일 여론 형성에 힘썼다. 3·1운동 때에는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참여해 투옥되었으며, 3년간의 옥고를 겪었다.

1918년 서화협회 창립 시 13인의 발기인으로 참여한 그는 근대 서화계의 정신적 지도자로 활약했다. 광복 이후에는 서울신문사 명예사장, 민주의원, 대한민국축성국민회장, 전국애국단체총연합회장 등을 역임하며 사회적 역할을 이어갔다. 6·25전쟁 중 대구에서 생을 마쳤으며 사회장으로 장례가 치러졌다.

일제강점기에는 관직을 멀리하고 서화와 금석학 연구에 몰두했다. 아버지 오경석의 수집 자료와 자신의 평생 연구를 토대로 『근역서화징(艮域書畵徵)』을 편찬하여 삼국시대부터

근대까지의 한국 서화가 정보를 집대성했다. 또한 서화가·학자의 인장을 모아 『근역인수(槿域印藪)』를 엮고, 다양한 고서화와 문헌을 화첩 형태로 정리한 『근역서휘(槿域書彙)』·『근역화휘(槿域畫彙)』 등을 남겨 한국 서화사 연구의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

서예가로서 그는 전서와 예서를 높은 품격으로 구사했으며, 와당(瓦當)·고전(古錢)·갑골문 등 고대 문자 요소를 결합한 독창적 구성을 시도해 자신만의 서체 세계를 확립했다. 전각과 고서화 감식에도 뛰어나, 해인사 「자통홍제존자사명대사비(慈通弘濟尊者四溟大師碑)」의 두전(頭篆)* 등 전국 각지에 그의 금석 글씨가 남아 있다.

* 비석 몸통의 머리에 돌려가며 쓴 전자